

불법도박 OUT! 청소년 지키는 '시민 어벤저스'

불법도박은 '사회 악'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 구석구석에 검은 손이 뻗어있다.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나 불법도박을 쉽게 접하게 된 탓이다. 어른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도 유해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불법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도 수탁사업자 케이토토와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의 실태와 문제를 점검·진단했던 스포츠동아는 이번에는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각 관련부처, 유관단체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청소년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케이토토는 정기적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건전한 구매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왼쪽 사진), 2010년 출범한 중독예방시민연대도 도박 예방 및 의식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를 결성했다. 도박은 물론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성 7개 업종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기관에 자문을 하며, 피해자들의 치유 및 자활까지 돕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해마다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는 이들에게도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은 최대 화두다. 카지노, 경마 등 대부분의 사행성 업종은 청소년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스포츠도박 역시 청소년들의 불가침 영역이다. 구병두 스포츠도도 본부장은 "규정상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곧장 계약해지 조치를 취

한다"고 설명했다. 타 업종에 비하면 강력한 징계다.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2개월, 2차 3개월, 3차 소매인 지정 취소의 징계를 받는다.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이 해지되는 담배와 달리 스포츠도도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사실 토도'로 대표되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다른 영역이다. 가입 당시 계좌번호와 명의자의 이름 일치 여부만 확인할 뿐, 연령 제약은 없다.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원가입 뒤 불법도박을 할 수 있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청

소년들의 무분별한 도박이 가능한 실정이다. 진입장벽이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중독예방시민연대는 예방 및 의식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소재 초중고교가 '도박의 위험성'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의 요청이 효력을 낸 것이다. 이들은 케이토토 측으로부터 해마다 중독예방치료기금(수익의 0.35%)을 지원받아 그 중 일부를 감사비로 쓴다.

발로 뛰는 캠페인도 병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신촌의 차없는 거리로 나가 청소년들과 적극적으로 스킨십했다.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도 함께 나섰다. 강 사무총장은 "수탁사업자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나서기는 쉽지 않다. 케이토토 측에서 전향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해준 것"이라며 고마워했다. 부모와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에 설문 조사 때 청소년들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도박 위험성 홍보·정부기관 자문 활동 중독예방 의무교육 조례 통과 성과도

스포츠도도와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새로운 시도...청소년 인식 변화 앞장

중독예방시민연대는 2010년 1월 출범했다. 2007년 9월 설치된 국무총리 직속 사행산업 통합감독 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의 출범을 이끌었던 단

이릴 수가!...대구·경남 ACL 16강 좌절

비경도 16강 대구, 광주에 0-1 석패 경남, 최종전 이겼지만 가시마도 승리



K리그 대표 도·시민구단의 아시아 여정이 아쉬움 속에서 막을 내렸다. 창단 후 첫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16강 진출을 노렸던 경남FC와 대구FC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경남은 2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ACL E조 조별리그 조호르FC(말레이시아)와 6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두고 승점 8(2승2무2패)을 기록했지만 2위 가시마 엔블러스(일본)를 끝내 넘어지지 못했다. 가시마는 이날 홈산둥FC(중국)전에서 2-1로 이겨 승점 10(3승1무2패)를 챙기고 2위 자리를 지켜냈다.

역시 창단 후 첫 ACL 무대를 밟은 대구도 광주에 0-1로 패하면서 F조 3위로 밀려나 짐을 싸고 말았다. 이날 비기지만 하더라도 16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앞선 5경기에서 10골을 터뜨렸던 공격진이 최종전 내내 침묵하며 3위(승점 9·3승3패)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반면 광저우는 마지막 날 극적으로 2위(승점 10·3승1무2패)로 올라 16강행 티켓을 품었다.

경남과 대구 모두 모든 전력을 쏟아 부은 일전이었다. 16강행을 위해 무조건 승리를

한 뒤 가시마의 패배를 기다려야했던 경남은 무릎 부상으로 두 달 가까이 결장했던 루크 카스타이노스를 최전방으로 배치하는 한편,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3주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던 쿠니모토에게 중원시령권을 맡기면서 공격적인 전술을 펼쳤다.

그러나 조호르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전반 8분 여성해의 오른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를 맞고 나온 틈을 타 이를 록이 슈트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빗나갔고, 전반 37분 김승준의 침투 패스를 받은 네게바가 중원부터 공을 끌고 가며 개인기로 수비수들을 제친 뒤 왼발슛을 했지만 역시 골망을 가리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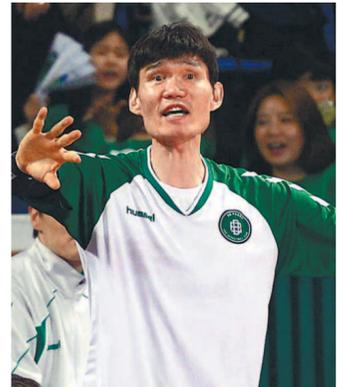
기다리던 첫 골은 후반 20분 터졌다. 이광선이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루크가 골로 연결하면서 리드를 잡았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 쿠니모토가 추가골을 올렸지만, 경남의 기쁨은 거기까지였다. 가시마가 산둥을 잡았다. 소식에 전해지면서 경남 선수단은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승리 세리머니를 펼쳐야 했다.

한편 대구 역시 공격수 세징야와 에드가, 김대원, 정승원을 모두 선발 투입하는 초강수를 내놓았지만, 오히려 후반 19분 수비수 정태욱이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눈앞으로 다가왔던 16강행 티켓을 놓치고 말았다.

이로써 아시아 무대 정상을 노리는 K리그의 도전은 기어급단 전복 현대와 울산 현대의 몫으로 남게 됐다.



경남FC가 창단 후 첫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2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조호르를 2-0으로 격파했으나 아쉽게 조 3위에 머물렀다. 경남-조호르전 경기 중 한 장면. 이날 광저우 원정에서 패한 대구도 함께 16강 진출에 실패해 아쉬움은 더욱 컸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김주성

김주성, DB 코치 컴백 김종규 특급 도우미로

원주 DB의 레전드 김주성(40)이 지도자로 프로농구 코트에 복귀한다.

DB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팀의 코치로 합류한다. DB는 현재 이상범 감독과 이효상, 김성철 코치로 코칭스태프를 구성하고 있다. 김주성은 팀의 막내 코치를 맡게 된다. 2017~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김주성은 지난해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LA 인근의 엘바인으로 건너가 코치 연수를 해왔다. 미국 대학농구 팀, 미국프로농구(NBA) 하버리드 G리그 몇몇 팀을 오가면서 훈련모습을 눈으로 익혔다.

김주성의 코치 선임은 구단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200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DB의 전신 TG삼보에 입단한 이래 16시즌 동안 줄곧 한 팀에서만 뛰었다. 정규리그 통산 1만288점(통산 2위), 4425리바운드(2위), 1037블록슛(1위) 등의 기록을 남겼다. 프로농구 역사상 통산 1000개 이상의 블록슛을 기록한 선수는 김주성 뿐이다.

16시즌 동안 5번의 정규리그 우승, 3번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2번의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MVP를 수상하는 등 국내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로 군림했다. 지난해 DB는 김주성의 은퇴식을 열고 등번호 32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할 바 있다.

DB는 최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센터 김종규(28·207cm)를 보충총액 12억7900만원(연봉 10억2320만원·인센티브 2억5580만원)의 거액에 영입했다. DB는 김주성 신임 코치가 김종규의 적응과 성장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김주성은 현역시절 김종규와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함께 대표팀의 골밑을 지키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2018~2019시즌 종료 이후 선수단 휴식 중인 DB는 다음 달 3일부터 팀 훈련에 돌입한다. 김주성은 2일 귀국, 곧바로 팀에 합류해 코칭스태프 미팅을 거쳐 선수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원주로 돌아온 로드FC...제주 흥행 잇는다

내달 15일 054 대회...라인제 출격



로드FC가 약 1년 만에 본사가 위치한 강원도 원주로 돌아간다. 로드FC는 6월 15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굽네몰 로드FC 054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후 약 1년 만에 개최되는 원주 대회다.

원주에는 로드FC의 본사가 있다. 그래서 해마다 원주에서 대회를 개최해왔고, 올해는 6월 15일로 개최 날짜가 결정됐다. 메인이벤트는 '미들급 챔피언' 라인제(33·팀 코리아MMA)의 1차 방어전이다. 지난해 원주에서 열린 로드FC 048에서 '미들

급 챔피언' 최영을 꺾고, 새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같은 장소에서 1차 방어전을 하게 된 작오가 남다르다. 도전자 양해준(31·팀 파시) 역시 로드FC에서 처음으로 타이틀 전에 나서 독기를 품고 있다.

메인이벤트 외에도 출전 선수들이 쟁쟁하다. 김세영(29·팀 코리아MMA), 황인수(25·팀매드), 최원준(30·MMA STORY), 유재남(32·로드집 원주 MMA), 심건오(30·김대환MMA), 장익환(32·팀파시), 정

상진(37·팀 코리아MMA) 등이 화려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로드FC는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굽네몰 로드FC 054의 티켓을 판매한다. 티켓은 VVIP석, S석, F석까지 지정석과 비지정석인 A석으로 구분돼 있다. 티켓구매 관객은 넘버링 대회 직전에 열리는 굽네몰 로드FC 영건스 43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문의는 로드FC로 하면 된다.

장상은 기자 award@donga.com

전국소년체전, 25일 개막 36개 종목 나흘간의 열전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제48회 전

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개최되는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7234명의 초등학교, 중학교부 선수단이 출전한다. 익산종합운동장 등 전라북도 14개 시·군 내 50개 경기장에서 36개 종목 경기가

개최된다. 축구(23일), 야구, 테니스, 농구, 핸드볼, 복싱, 하키, 철인3종(이상 24일) 종목은 경기 일정상 미리 대회를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예년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일 개최를 최소화하는 한편 종목별 경기장은 경기 1일 전에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도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시·도별 종합 시상 및 메달 집계도 실시하지 않는다.

대회 기간 중에는 소년체전 기념 미술공모전 입상작 작품 전시회와 개최지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대회 홈페이지(junior.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